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승납 20년'으로 확대되나

## 조계종 총무원, 21일 '중헌 및 선거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이 비구·비구니의 차별 없이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무원장 선거인단 구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대덕·혜덕(승납 20년 이상) 이상의 스님으로 확대했다. 이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에서 각각 10명씩 선출하는 교구선거인단 등 총 321명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조계종 스님 가운데 대덕 이상의 비구 스님은 3052명, 혜덕 이상의 비구니 스님은 3117명으로 총 6169명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1만여 명의 조계종 스님 가운데 60% 이상이 총무원장 선거권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구·비구니 스님 모두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비구니 스님들에게 부여되는 총무

원장 선거권은 매우 미비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과 각 교구선거인단에서 선출되는 1~2명이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해 왔다.

4월 16일 열린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과 차별없는 완전 직선제를 요구했다. 비구니 대표로 참여한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

**대덕·혜덕 법계 투표권 부여**  
**321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비구니 참종권 보장 의미도**  
**6월 25일 총회 통과가 관건**

은 준직선제부터 추대제, 선추천 후 선출 방안 모두 비구니 참종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완전 직선제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말사 주지의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선거법 개정안 따르면 제4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서 말사 주지는 교역직 종무원에서 배제

됐다. 총무원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도 확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회 부권한은 일원화했다. 개정안은 '선거법' 제49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3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호법부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의원 2/3이상의 결의로 회계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무원은 5월 26일 법주사에서 예정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참석해 선거법개정안을 설명했으며,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장단, 비구니 스님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마련하고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총무원은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중헌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중도들의 의견을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정안을 보완, 6월 25일 중앙총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조계종은 5월 2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로 일대에서 추모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관 기자

## “그들은 떠났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 조계종, 20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재... 유가족 등 5천여 대중 참석

“죽음마저 불평당한 시대에 죽음을 고통 벗어나 왕생극락하옵소서.” 선경 스님의 화형이 조계사에 마련된 식당을 메웠다. 출·재가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28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재가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개최했다. 그간 사찰과 단체의 추모법회들은 꾸준히 있었지만, 종단 차원의

대규모 추모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추모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희생자 유가족과 불자, 시민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세상을 위해 바꿀 것은 모두 바꾸어야 하며, 도려내야 할 것은 모두 도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인 제삼열 씨(단원고 제세호 학생 부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식당은 눈물바다가 됐다.

제 씨는 “못해준 것이 많아 지금도 마음이 아린다. 다음 생애는 만나지 말자. 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에게 도움이 못돼 미안하다”면서 “네가 나의 아들이라 너무 행복했다. 사랑한다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재에서는 인목 스님과

수륙제보존회의 천도의식과 순경소년·제니걸, 성의신 해금연주가, 장사의 씨의 추모 공연이 함께 진행돼 유가족과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추모현정곡인 '우리 함께' 열창한 아이들 그룹 순경소년과 제니걸은 음원 수익의 전부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정근과 참회의 108배를 이어갔으며, 참석대중은 백등을 들고 종로 일대를 추모 행진했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3면

# 노인 법회·복지를 함께... 유대감을 늘려야

## 독거노인 대책 무방비, 불교의 역할은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원룸에서 A씨(57)가 목을 매 숨졌다. 당시 A 씨가 남긴 유서에는 “나는 가족이 없다. 내가 죽으면 화장시켜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 사망한 지 1주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남편과 이혼 후 36년을 혼자 살다 오던 B씨(71)도 지난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려왔으며, 장기간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뚜렷한 정책적 해결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고독사에 대한 정부 차원

의 데이터도 없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올해 453만9000가구로 전체의 25.3%에 달한다. 특히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은 2013년 현재 12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노인 613만8000명의 20.4%에 해당된다.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54만4000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118만7000명)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5년 137만9000명, 2025년 224만8000명, 2035년에는 34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 노인 30만명**  
**불교계 복지관 돌봄서비스**  
**운영 위주... 정서 공유해야**

군'으로 보고 있다. 약 30만명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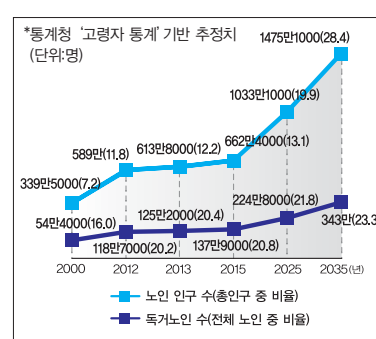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따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운영할만한 역량을 갖춘 복지관은 드물다. 정부에

서 운영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제안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복지관마다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는 방문과, 심폐술 등의 생활교육,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혜를 받는 독거노인의 수는 한정돼 있고, 무엇보다 관심과 케어, 정서적 유대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고독사 스님이 참람한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노인복지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맑고 향기롭게’의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은 독거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부 문화 캠페인으로 후원계좌 이체, CMS(자동이체) 정기후원, 캠페인

〈표〉 전체 노인 및 독거노인 증가 추이



현장 모금, 동전 모금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연 대상으로 사연이 소개된 어르신들에게 난방비 및 생계비 지원 목적으로 골고루 배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노인공동주거시설 설립과 지역 사찰에서의 노인 계층 법회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유대와 공감대가 고독사를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

각 스님은 “본사와 말사 등이 독거노인들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생신 잔치 등은 1회성 행사일 뿐이다. 가족처럼 돈독히 노인들을 묶을 수 있는 계기를 사찰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 대표는 노인법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노인들의 신행활동과 복지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 법회는 계층 간 동질감과 자부심을 갖게 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력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불교 노인 복지에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동 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리사를 별도 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정혜숙·배현진 기자

관련 기사 31면

## 994호 INDEX

시방세계 5  
 원학스님, 진오 스님 복 콘서트 현장



종합 2·3  
 '청소년 마음등불' 확대 시행  
 제3회 청년출가학교 열린다  
 진제 스님 시중...동화사 내용 일단락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한다  
 백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선양사업

신행·복지 6·7  
 자기연민, MBSR... 공부모임 인기  
 문턱 낮춘 복지관 인문학 강좌 호평

강의실 중계 8  
 조성택 교수의 '불교인문학' 1강



# 여객선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대재와 국가안녕 경제부강 기원대법회

기미 3.1 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이신 용성조사 탄생 150주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선구자로서 용성조사로 부터 은. 법. 강. 율을 전수 받으신 봉암 대선사 성도 75주년, 사리 500여과 를 출현하신 석가산 장로의 자모 마야성 보살 입멸 1주년이 되는 음력 5월 8일을 맞이하여 차가운 진도 앞 바다에서 희생하신 애처로운 고흔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가신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천도대재를 봉행하므로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경제가 부강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국민은 해인사 용탑선원에 모여 함께 기원하시기를 합장 합니다.



\* 일시 : 2014년 6월 5일 10시 \* 장소 : 가야산 해인사 용탑선원



주최 : 봉암대선사문도회 주관 : 천도대재봉행위원회

봉행위원 : 보산. 남산. 가산. 화산. 해산. 미산. 흥산. 정산. 대산. 엄산

■접수처 : 서래사 051)556-0278 법전사 054)972-5545 불광사 055)364-4747 금선사 033)763-2441  
 조계사 053)257-7032 광덕사 041)584-4154 용호사 043)253-7657 비봉사 055)742-0441  
 천양사 010-6593-7982 구룡사 054)437-4792

봉행위원장 : 화산당 월인 화남 / 개당화상 : 해산당 혜륜 화남 / 배당화상 : 미산당 천강 화남 / 어장화상 : 정산당 청봉 화남

\* 장소변경 : 팽목항에서 가야산 해인사 용탑선원으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가 신청 선착순 1000분에게 용성조사께서 지으시고 마과 강사께서 번역하신 귀원정종을 봉암문도회에서 봉정하겠습니다.